

황룡강 장록습지 개발·보존 논의 착수

자치단체·기관·의회·시민단체·주민·전문가 TF 구성 오는 26일까지 주체별 위원 추천...내달부터 본격 활동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의 개발 또는 보존 방안을 두고 각계 의견을 나누는 논의가 정례화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가칭 장록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논의 전담팀(TF) 구성에 합의한 각 주체가 위원 추천에 들어갔다.

TF는 광주시·광산구·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 시의회와 구의회 의원,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가, 주민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명 내외

로 꾸릴 예정이다.

이달 26일까지 주체별 위원 추천을 받아 내달 상견례를 시작으로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TF 운영은 환경부에 장록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한 광주시가 맡는다.

개발과 보호 가치가 충돌하는 장록습지를 둘러싼 여론을 하나로 모을 때까지 상시, 정례 회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산구가 올해 1월25일과 지난 3일 두

차례 개최한 주민토론회에서 장록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찬반 주체 간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두 차례 토론회 성과로는 도심 속 생태녹지인 장록습지가 광산구 지역 발전과 개발사업의 장애물이 아니라 값진 자연자원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손꼽힌다.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 등은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보존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등은 원시 생태 그대로의 보호를 각각 제안하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정보에서 비롯한 개발규제 우려가 지난 토론회에서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

는 일들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록습지는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습지로 광산구 호남대학교 인근 황룡강교 일원에서 영산강 합류부까지 3.06㎢에 이른다.

광주시는 습지 보전 필요성을 인식해 2017년 10월 환경부에 장록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습지센터는 지난해 2월부터 열 달 동안 정밀조사를 시행했다.

국립습지센터는 829종 생물의 보급자료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밀조사 결과에도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 때문에 환경부에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계획 수립 건의를 유보했다. /최권범 기자

“전라도는 문화·예술·사상 집결지”

도을 김용옥, 도청서 특강...“역사 주체 자긍심 가져야”

도을 김용옥(사진) 선생이 18일 전남도청에서 ‘새천년, 전라도 정신의 세계사적 조망’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 도민과 공직자에게 역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는 도민, 대학생, 공무원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해 전라도 훈과 정신, 역사 속 전라도 이야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에서 “전라도 새천년의 원년이 되는 해에 전라도 정신을 일깨워줄 도을 선생의 특강을 직접 듣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라도민과 공직자가 자랑스러운 전라도 정신을 이어받고, 미래 천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도을 선생은 특강에서 “전라도는 우

리 역사에서 문화·예술·사상의 집결지이자 중심이었고, 동학 농민혁명, 의병,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역사의 고비마다 불의에 항거하며 역사를 바로 세운 것도 전남도민을 비롯한 호남인”이라며 “이러한 정의로운 의(義)와 예(藝)를 중시했던 전라도의 훈과 정신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도을 선생은 이어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원동력으로 전남도의 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역사의 주체로서의 자긍심이 필요하다”며 도민과 공직자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당부했다. /임재만 기자



시의회,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예산 삭감

제1회 추경안 심의...도시철도본부 리모델링 공사비도 감액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8일 광주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예산 2천500만원 중 1천500만원을 감액했다.

시는 오는 6월 예정인 착공식 예산 4천200만원에서 2천500만원을 증액해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

산건위는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도 7천500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했다.

산건위 장영주 의원은 “도시철도 2호

선 사업비 증액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착공식을 겸소하게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론화 절차로 쓰지 못한 이월 예산(4천만원)으로 착공식을 하려 했으나, 다른 착공식 사례를 검토했을 때 행사 장비 임대 등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26-29일 예결위와 30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확정한다. /김다이지



동부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광주 북구와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은 18일 오전 동부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문인 청장과 장영신 교육장, 위원,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의 상호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동부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구는 중·고교 신설과 학교 체육시설 개발,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을 제안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과 초·중학교 동아리 활동, 지역 축제 연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광주북구 제공

광주시·전남도, 고성산불 피해지역 돕기 나서

정종제 행정부시장 현장 방문 격려...도 공무원 성금 기탁

광주시와 전남도가 강원 고성산불 피해지역 돕기에 나섰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8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제39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에 앞서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가 심각한 고성을 찾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광주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정 부시장은 고성 경동대 글로벌캠퍼스에서 구호물품 분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

이 하루빨리 일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부시장은 손님이 급감해 울상인 주변 상권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 자원봉사자 45명을 인근 식당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정 부시장은 또 최문순 강원지사를 만나 큰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지사는 “이번 산불 피해에 소방헬기와 차량 등 장비는

물론 자원봉사자와 구호물품을 보내 진화와 복구, 구호를 함께 해준 이용섭 시장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모금한 2천636만8천700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전남도 산하 전 공무원이 자을 모금으로 마련했다. 이날 최정선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이 속초시청 부시장실에서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전남도는 지난 4일 강원도 산불 당시,

소방본부 소속 소방차량 22대와 소방공무원 61명을 강원지역 산불 현장으로 급파해 초기 진화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현장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김영록 도지사는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또 속초시청에 마련된 중앙수습지원단을 방문해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최권범 기자 /임재정 기자

광주 국악 상설공연 셋째마당 20일 연다

공연마루서 관현악곡·창작무용·국악가요 등 선포

광주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 선보이는 ‘광주 국악 상설공연’ 4월 세 번째 공연이 20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꾸미는 이번 공연은 최원록 지휘, 이은비 사회로 관현악곡, 창작무용, 국악가요, 통소협주곡 등 다채로운 국악 한마당을 선보인다.

첫 무대에서는 작곡가 양방언이 아버지의 고향 제주의 아름다운을 표현한 곡 ‘프린스 오브 제주’를 관현악으로 연주한다.

이 곡은 서정적인 선율과 호방한 태평소 울림이 어우러져 넓고 시원한 제주도 풍경과 바다를 그릴 수 있다. /최권범 기자

또 창작무용 ‘천개의 바람이 되어’, 생황과 가야금 2중주곡 ‘Small flower near by the railroad’, 영원한 우리의 소원,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여 부르는 국악가요 ‘하느님의 꿈’, ‘상모’ 등이 이어진다.

이어 통소와 협주하는 ‘풍전산곡 : 바람이 전해준 산의 노래’, 빠른 속도감과 함께 연주자들의 화려한 기량으로 풀어내는 관현악곡 ‘신পুর리’ 등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광주 국악 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무료로 열린다.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최권범 기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DMZ 民+평화인간띠 운동

Korea DMZ People's Peace Chain Movement

2019년 4월 27일 (토) 오후 2시27분 임진각 뒤쪽 민간인통제구역 내

한반도 분단 현실의 종식과 항구적 평화, 그리고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는 DMZ 평화인간띠 잇기 행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집니다.

DMZ평화인간띠운동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 27분 분단의 상징인 임진각 뒤쪽 민간인통제구역 내 생태탐방로 구간에서 1만여명의 시·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 인간띠 운동을 전개합니다.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한반도 허리를 관통하는 DMZ 서쪽 끝 강화도에서 동쪽 끝 고성군까지 평화누리길 500km 구간에서 5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며, 광주·전남 참여자들은 임진각 뒤쪽 민간인통제구역에서 인간띠 잇기를 펼칩니다.

남북의 항구적 평화의 염원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국제적 지지 여론 형성 및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세계에 전파하는 계기가 될 이번 DMZ民+평화인간띠운동에 광주·전남 시·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장 소** | 광주·전남구간-임진각 뒤쪽 민간인통제구역 내 생태탐방로 구간
전체구간-고성~인제~화천~철원~파주~고양~강화(평화누리길500km)
- 참가인원** | 총 1만명(광주 5천명, 전남 5천명)
- 참가문의** | 062-232-6131

참여단체

광주YMCA,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함께걷는한반도평화의길광주전남모임, 사)민생평화광장, 생활정치발전소, 광주YWCA, 사)광주전남6월항쟁, 광주예코바이브, 천주교광주대교구민족화해위원회, 광주기장노회정의평화위원회, 광주NCC, 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 가톨릭공동선언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전도와공동체, 마을을나누는사람들, 지역미래연구원, 생명을노래하는송기행,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목포YMCA, 해남YMCA, 화순YMCA, 광양YMCA, 여수YMCA, 목포YWCA, 순천YWCA, 광양YWCA, 여수YWCA,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목포포럼, 목포KYC, 나주사랑시민회,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광양참여연대,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중심사, 광주불교연합회, 근로정신대참모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광주시민센터, 사)아시아밤을공동체, 원불교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산시민연대, 빛고을아이들, 국제엘네스티광주전남본부, 민주노총 전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 전교조 전남지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광주전남추모연대, 민중당 전남도당, 광양진보연대, 여수진보연대, 나주진보연대, 화순진보연대, 강진진보연대, 무안진보연대, 광주홍사단, 통일의를광주전라본부,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준), 동학마당,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우리식물연구소, 광주전남평화실천연대, 광주전남김근태재단,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무순)

